
2018년 전국 중·고등학생
독도체험 발표 대회 자료집

2018.07.29



[역 지 사 지]

목 차

I . 활동 개요	1
II . 활동 방향	2
III . 활동 결과	5
IV . 활동 소감	6

【서식1】

1. 활동 사진(자료집)	7
2. 독도체험관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q3JKAkZDQQ	

I	활동 개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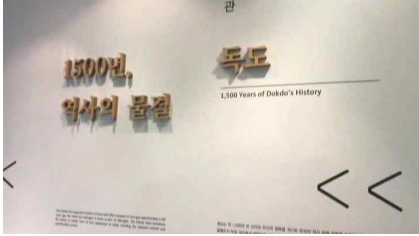


참가 학생	용예원	한 국 관 광 고	2학년	관광중국어통역과
	정혜지	한 국 관 광 고	2학년	관광중국어통역과
	이윤지	한 국 관 광 고	3학년	관광중국어통역과
	장보경	한 국 관 광 고	3학년	관광중국어통역과
	최예솔	한 국 관 광 고	3학년	관광중국어통역과

1차	역할 분담 및 아이디어 회의
2차	주제 선정 및 장소선정, 콘티 작성
3차	촬영 시작 (독도체험관)
4차	설문조사 준비, 실행 및 영상 편집
5차	보고서 작성

II 활동 방향

UCC 제작 계획서

작품명	똑똑! 독도예요!
작품 제작 의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증거와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독도를 잘 모르는 이들 혹은 독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이들(특히 외국인)에게 독도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독도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독도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알리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다.
작품 주제	세계 속에 올바른 독도를 심자.

장면 세부사항 및 설명		
SCENE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관빌딩 (02-2012-6100)에 위치해 있는 독도체험관 정문
SCENE #2		독도의 첫 등장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소개한 역사·미래관
SCENE #3		전시된 조선시대 울릉도 정책과 독도에 대한 기록들
SCENE #4		독도의 기후, 지형, 지질 그리고 화산 활동 등을 전시한 자연관

SCENE #5		독도 지질 만져보기 체험
SCENE #6		독도의 생태환경과 독도 모형
SCENE #7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SCENE #8		독도 관련 기사들이 실려있는 나만의 독도 신문 만들기 체험
SCENE #9		실제 독도 주변의 경관들을 360도 전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독도VR
SCENE #10		독도 4D영상관에서 입체영상과 모션베이스를 통해 독도의 지형 및 지질,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등을 가상으로 체험
SCENE #11		우리 역지사지 동아리의 마크로 영상의 끝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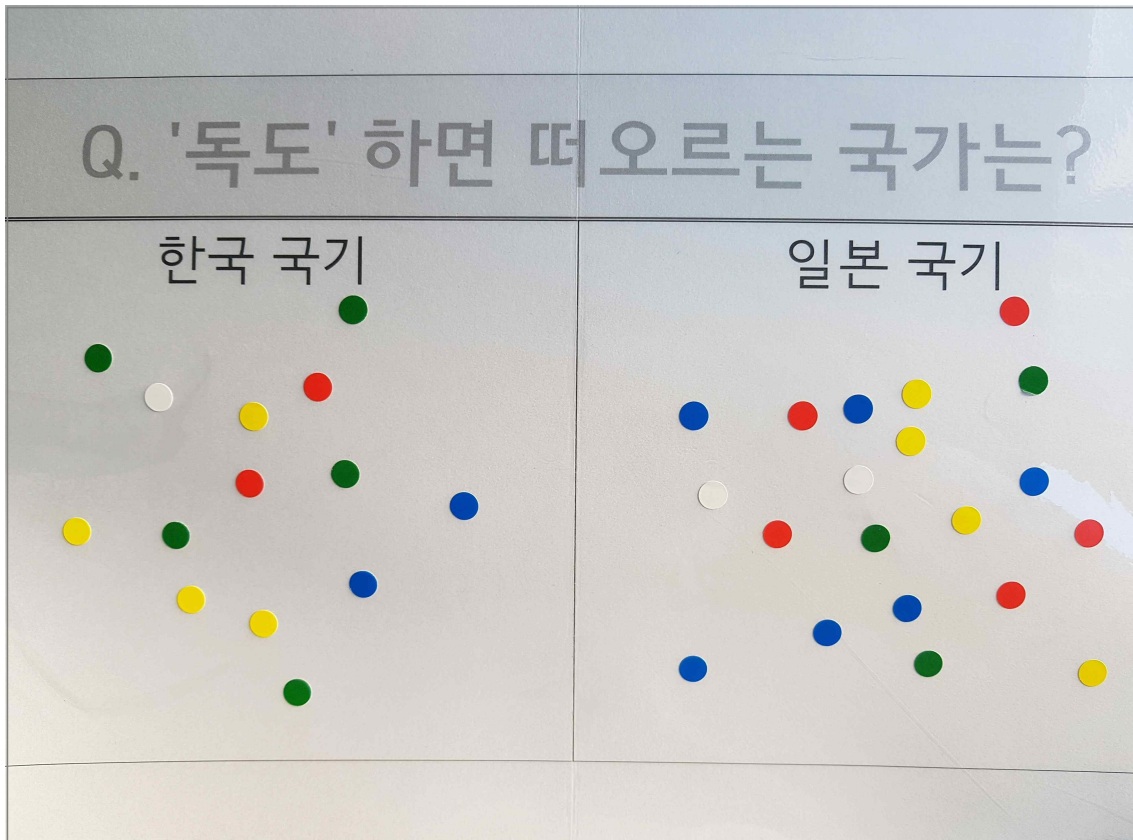
설문조사 계획서

Q. '독도' 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 **활동 대상:** 다양한 연령, 문화를 가진 시민
- **활동 주제:** '독도'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 **활동 장소:** 수원화성 부근
- **활동 방법:** 해당 칸에 스티커 부착

III 활동 결과(설문조사)



‘독도 하면 떠오르는 국가는?’이라는 주제로 수원화성 부근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인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총 34표로 한국이 14표, 일본이 20표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독도가 잘못 알려졌다라는 점과 더불어 일본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막연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말하며 독도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IV 활동 소감

독도에 대한 관심을 밖으로 꺼내서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어쩌면 스스로 무지했었던 독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뿌듯한 활동이었다. _(용예원)

독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도 잘 몰랐던 독도에 대해 알게되어서 굉장히 뜻깊었다. 솔직히 독도가 우리 땅 이라고는 말하지만 왜 우리 땅인지 역사적 근거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개라도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을 알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또 외국인들이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더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좀 더 독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_(정혜지)

이십 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십 년이 넘게 독도에 대해 배우고 독도 관련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활동만큼 자세히 또 정확히 독도를 알게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비록 서툰고 미세한 첫 걸음이었지만 이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 독도에 관심을 갖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_(이윤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 땅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까지도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했던 과정과 결과가 세계에 바른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일이 되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_(장보경)

너무나도 익숙한 독도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독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생각은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기에 와 닿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독도체험관에 다녀왔는데 독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_(최예솔)

【서식1】

활동 사진



▲ 독도체험관



▲ 독도체험관 입구



▲ 독도체험관 4D체험



▲ 독도 영상 촬영



▲ 독도 설문조사

【서식1】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발행일 2012년 9월 14일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대건동 257) 입관빌딩
연락처 02-2012-0000

독도 신문

독도체험관
Dokdo Museum Seoul
www.dokdomuseumseoul.com

독도체험관 Dokdo Museum Seoul

2018년 6월 3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전국민 독도 수호 열의 대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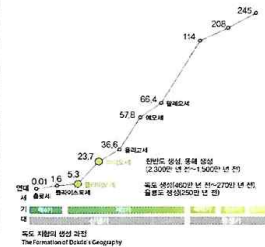


오늘의 독도 수호자

512년 우산국, 신라에 복속되다.

512년 음력 6월 동해바다에 나타난 신라함대. 신라군 총 사령관은 이사부 장군이었습니다. 이사부는 출생연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내물왕의 4세손으로 전갈출신 귀족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정벌하기 위해 나선 이사부장군이 준비한 것은 나무로 만든 사지였습니다. 이사부는 나무사자를 많이 만들어 군선에 나누어 실은 뒤 해안에 도착해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뱀수를 끌어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 라고 속여 우산국 우해왕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우산국은 신라에 복속하게되었고, 신라의 문화가 전파되었습니다. 울릉도에는 신라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독도 지형의 생성연대와 형성과정



본래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끝을 이루고 있었으나, 2,300만 년 전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충돌로 인하여 한반도는 융기하고, 일본 열도는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사이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형성된 것이 바로 동해 바다이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부터 약 250만 년 전 사이에 동해 바다 해저 2,000m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기초가 다져진 후, 계속적인 분출 과정을 통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독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지만, 파랑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약 250만 년 전에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되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침식 작용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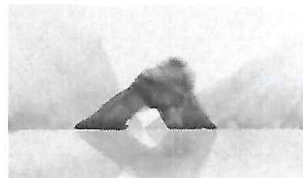
우산과 부릉으로 기록되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于山武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물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가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종상 화백, 독도를 그리다.



독도의기 II _ 이종상 화백, 1982

"독도는 볼 때마다 달라요. 천의 얼굴을 하고 있지요. 작년에 봤을때 다르고 계절마다 달라요. 자연을 빌려서 축소해 놓은 잘생긴 수반석(水盤石)같다고나 할까. 자연의 오묘함과 신(神)의 조형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장작돌입니다." (이종상)

천연기념물 제336호 _ 독도천연보호구역

(우) 799 - 806,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동도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서도 -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관람안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휴관일: 1월 1일, 태무 일요일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관람료: 무료

사전예약

관람예약하시는 분은 방문 전 '독도신문'의 전시이탈로 신청해야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독도신문 홈페이지 참조

찾아오시는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대건동 257) 입관빌딩



▲ 독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독도신문